

대형 유통점-전통시장 상생 가능성 봤다

광주신세계·7개 상인회 30명 부산 자갈치 시장 탐방 국제시장 떡볶이 등 먹거리 콘텐츠·문화 테마 견학

지난 28일 오후, 부산 자갈치시장에 광주 양동시장과 화정서부시장 상인들이 떴다.

대형 유통시설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현장을 보기 위해 이날 부산을 찾은 광주지역 상인들은 자갈치시장 인근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광복점에 먼저 눈길을 쫓았다.

흔히, 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서면 전통시장의 매출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때문에 상인들의 관심은 자갈치시장 인근의 백화점에 쏠렸다.

또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신세계그룹)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한 광주지역 상인들은 "대형 쇼핑 시설이 들어선 뒤 되레 시장에 사람이 몰린다"는 자갈치시장 상인의 말에 질문을 쏟아냈다.

이어 이들 상인들은 100여미터 남짓 긴 줄을 서야 맛볼 수 있는 국제시장의 떡볶이, 씨앗떡 등과 같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와 다양한 문화 테마 상품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이날 탐방은 광주신세계와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가 체결한 '지역 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를 비롯해 양동전통시장 7개 상인회장단과 서부시장 상

인회 임원 7명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

박인철 광주신세계 개발팀장은 "광주에 들어설 복합 랜드마크 시설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해 보면서,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주변 상권의 발전상을 확

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3월 부산 해운대에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는 쇼핑과 레저,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랜드마크 시설'이다.

올해로 개점 6년째를 맞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부산과 경남지역의 쇼핑 메카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이 탐방에 참여한 화정서부시장 일경환 사무국장은 "센텀시티 주변 상권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을 갖게 됐다"면서 "광주신세계 복합랜드마크 규모도 부산 센텀시티 규모에 뒤지지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특급호텔·면세점·백화점 시설을 갖춘 광주신세계 랜드마크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양광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8일 광주 양동시장과 화정서부시장 상인들이 부산 센텀시티를 둘러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 적발

공정위, 다음달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하고 곧 제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날 29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12월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받았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잡아낸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대형마트들이 부서별로 설

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덜 준 경우다.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고 주는 방법을 썼다.

두 번째는 매출 채워야 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미리 돈을 받아낸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가 제재를 예고한 대형마트 3사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는 다음 달 초 면세점 입찰전을 앞두고 있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는 사업역량과 입지조건 외에도 사회기여도가 포함된다.

○연합뉴스

신가동 재개발 '빛고을드림사업단' 선정

광주 지역 대형 재개발지구로 이목을 모으고 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인 대림산업-GS건설-롯데건설-SK건설-한양 빛고을드림사업단이 선정됐다.

1일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은 지난 31일 신가동 분향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75%의 지지를 얻은 빛고을드림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전에서 승리한 빛고을드림사업단은 3.3㎡당 공사비로 399만원(철거 및 잔재 처리비 포함)을 제시했으며 가구당 9500만원의 이주비를 제안했다.

이파트 4030가구를 신축하는 신가동 재개발 사업으로 예상 공사금액만 8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을 두고 대형건설사와 지역 중견건설사 등 9개 건설사가 3개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 의사를 나타내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 위해 '금호기업' 설립

향후 금호산업 지분 사들여 지주회사 역할

금호타이어 주식 842만주 금호기업으로 교체

올 연말까지 금호산업 경영권지분(50%+1주) 인수대금 7228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자금조달을 위해 금호기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금호산업 인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담보로 잡혔던 금호타이어 주식도 매각이 가능해지는 등 인수자금 마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날 6일 설립 등기를 마친 금호기업주식회사의 본점은 광주시 광천동으로 돼 있고, 사내이사 3명은 박삼구 회장과 장남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 서재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으로 등록됐다. 감사

는 이용욱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법무담당 전무가 맡았다.

이 회사의 설립목적은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증권·파생상품 등에 투자 ▲자회사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자회사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등으로 명시돼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재무적 투자자를 모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현재는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데, 금호기업 주식회사가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사

들이면 지주회사가 된다.

금호기업에 통해 재무적 투자자들을 모으며 금호산업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박 회장은 측은 오는 6일까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채권은행에 내고 연내에 인수자금을 모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지분 인수 목적이라는 점에서 SPC와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할 회사가 필요해 금호기업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지난 30일 박삼구 회장과 장남 박세창 부사장이 담보로 제공했던 금호타이어 주식 824만8000여주를 금호기업 주식으로 교체한다고 공시했다. 담보 주식수와 담보금액 등은 추후 확정된다. 최근 박 회장 부자는 금호타이어 지분 8.14%(1286만여주·금

호아시아나문화재단 보유분 포함)와 금호산업 지분 9.93%(345만6000여주)를 블록딜(시간의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분을 팔아 금호산업 인수자금을 일부 마련하려는 의도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담보를 교체해 박 회장 부자의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이 가능하도록 해준 셈이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리커창 중국 총리 초청 한국 경제계와 간담회'에 참석해 앞서 금호산업 인수가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질문에 "잘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동생과 관계 개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만들어 가야죠"라며 관계 개선의지를 내비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일자리 만들기' 광주상의 워크숍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9일부터 30일 까지 이틀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광주·전남 인력양성 추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전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광주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과 공동주관한 행사로, 지역 인력양성기관 담당자와 일자리창출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 그룹 12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2016년 인력양성 및 고용활성화 사업관련 정부정책 개편방향을 알아본 후 기관 간 사업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 박승택 광주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각각 '내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능력중심 인력양성의 정책방향'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성사업 성공 시기공모전 당선작 및 정기수요조사 결과 발표, 리더십 강좌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기관들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토론이 진행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674회) | | | | | | |
|--------------|-----------------|---------------|----|----|------|-----------|
| 당첨번호 | | | | | 2등번호 | |
| 9 | 10 | 14 | 25 | 27 | 31 | |
| 1 | 6개 숫자 일치 | 1,770,565,500 | | | | 8 |
| 2 |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 49,182,375 | | | | 48 |
| 3 | 5개 숫자 일치 | 1,278,849 | | | | 1,846 |
| 4 | 4개 숫자 일치 | 50,000 | | | | 89,646 |
| 5 | 3개 숫자 일치 | 5,000 | | | | 1,465,031 |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질감패턴, 질감+색상, 질감+무늬, 색상이미지 패턴, 색상이미지+무늬 패턴

※패키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커블로그, 다형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 大山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